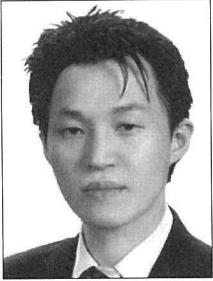


# BST OUT



배 정 식  
본회 지도부장

올 여름은 참 유란스러웠다. 폭폭씨는 살인적인 무더위가 계속되더니, 연일 비가오고 초강력 태풍이 상처를 남기고 지나갔다. 충청도 어느지역에서는 밖에 심어놓은 바나나 나무에서 바나나가 열려 방송을 탔다. 이전 예전에 맛보기 어려웠던 열대과일들이 우리나라 땅에서도 재배되어 식탁에 오르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몰고올 여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클 것이다.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는 스트레스에 약한 젖소들과 우리 낙농인들에겐 또 하나의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우리우유의 품질과 안전성은 세계 수준이다. 누가 뭐라해도 일등공신은 우리 낙농인들이다. 길지 않은 낙농역사 속에 이뤄낸 고품질의 우리우유다. 그렇지만 우리국민들이 생각하는 우리우유에 대한 가치는 충분치 않다. 더욱이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수준은 매우 높다. 지난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촛불사태에서도 보듯 미국에서 발병한 광우병은 발생하지도 않은 우리나라에서 위험수위를 오르내렸다.

우유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우유에 대한 안티세력들은 언제나 존재해왔다. 예전 '우유의 역습'이란 책이 발간되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 6월 1일 우유의 날을 맞아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우유의 성장호르몬' 문제를 가지고 기자회견하는 사태도 있었다. 또 얼마전 일부환경단체에서는 '유전자조작 주사 맞은 젖소이야기'를 그럴싸하

게 포장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제를 좀 더 짚어보면 우리나라는 BST(비유축진제) 허용국가다. 우리 낙농인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의 단체들이나 외부에서 보았을 때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BST 사용금지를 위한 법제화를 요청해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도 농식품부는 국제기구의 안전성 인정 등의 사유로 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회신해온 상태다. 다만 도입예정인 수의사처방제에 비유축진제 품목을 처방대상 품목으로 두어 관리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과 남미는 허용국가이고, EU와 캐나다, 일본은 사용금지국가다. GMO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EU의 입장이 다르다. 현재 FTA 체결국인 EU는 우리가 유제품 수입국이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 가까운 일본과 우리가 FTA가 체결되어 우리 유제품을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BST는 하나의 비관세장벽이 되어 우리우유, 유제품 수출이 어려워 질 수도 있는 문제다.

아무튼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BST 문제는 올 여름 날씨처럼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번덕스럽게 튀어나올지 모른다. 단순히 허가취소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가뜩이나 우유소비정체와 수급불안으로 위축되고 있는 현재의 낙농상황에서 분명 언제 터질지 모를 악재임에는 틀림없다. 국민에게 불신을 받기 싫다고, 좀 더 안전하고 고품질의 우유를 생산하겠다는 생산자의 깊은 뜻을 이대로 방기하는 것 또한 정부의 직무유기다. 다시한번 우리 생산자들의 목소리를 빌려 촉구한다. ☺